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2021 | 겨울 vol.55

창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광주저작권 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이용안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작권이
뭐죠?



저작권 소송을
당했어요!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서비스 이용방법

온라인 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이메일 copyright@gitct.or.kr

전화 (062) 610-9532 / 9534

내방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45,
전일빌딩245 5층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 이용절차

- 01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신청자)
- 02  접수 확인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 03  일정협의 및 서비스진행
- 04  만족도 등 사후관리 진행





표지이야기

오건규, 「만연사의 설경」, 80×76cm, 수묵
한국화의 거목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광주시문화예술상, 대동미술상,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대동전통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동시대, 남부대 강단에서 외래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수필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계간지 「서정과 상상」에 「인연」, 「세한정상(歲寒清賞)」 등으로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 화업과 문학을 겸하면서 일간지에도 다수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	<p>‘창’을 열며 ‘방콕’ 여행</p>	김정희
3	<p>특집기획_ 2021 광주 문화현장 핫이슈! 문화행정과 개방형 직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 존재의 이유 광주시립극단 사태로 본 예술인 권리 명과 암 드디어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변화다운 변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현황 그리고 장애인</p>	윤만식 주 흥 임인자 정두용 정진삼
14	<p>문화인 탐구생활 박진영 아나운서에게 듣는 매력적인 말하기</p>	강휘연·박진영
19	<p>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산수에 노니는 즐거움</p>	임준성
22	<p>문화진단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되길 광주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미래 모색할 중요한 시간이다 문화전당의 총체적 역량을 재조직할 때다</p>	김지연 조덕진 김기곤
28	<p>문화현장 우체국 통기타 동아리 ‘빅포스트하모니’ 대안공간 산수짜리</p>	안길열 김민지
32	<p>문화청년그룹 피규어와 디오라마 문화 대중화를 꿈꾸는 GN STUDIO!</p>	임중현
34	<p>문화리뷰 내게 신선한 문화공간과 체험을 선물해 준, 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미래를 위한 실천</p>	김남중 강휘연
38	<p>문화특특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와 앞으로의 기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p>	우성현 김옥열
42	<p>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p>	편집부
48	<p>편집후기</p>	

‘방콕’ 여행

김정희_ 편집위원장



‘방콕으로 여행을 왔다/이상하다/죄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그렇게 여행 온 지 2년/슬슬 적응이 돼 간다//이 정도면 이민자다……〈하략〉’

‘끝나지 않은 여행’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며칠 전 용아 백일장 결선 심사에 오른 중등부 응모작 가운데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다. 첫 줄을 읽으며 이 시국에 왜 방콕 여행? 놀라서 읽다 보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중학생다운 창의적 시각으로 언어의 연결을 시도한 나름 기특한 작품이었다.

그렇다. 오랜 코로나로 우리들에겐 여행지에서 표류하듯 피로함이 누적되고 있다. 의료진이나 중·소상인들, 무대나 현장을 잃은 문화 예술인들… 곳곳에서 위기감이 팽배해져간다. 물론 언제 ‘위기’ 아니었던 적 있었을까. 사랑한다는 얘기도 백번쯤 들으면 의심스러울 텐데 지난 10여년 문화, 금융, 언론, 미디어, 그리고 정치와 정치인 군상,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위기의식을 느끼며 책임을 전가하고 소통을 말하면서 실은 서로 불화했다.

1990년대 초에 심리학 교수인 케빈 던바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위대한 발견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과학자들의 탁월한 발견이 고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열 명 남짓의 학자들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최고의 연구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정기적인 실험실 모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혁신의 시작은 현미경

이 아니라 과학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회의 탁자라는 네트워크였다.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빈의 집무실에서 수요일 밤마다 내과의사, 철학자, 과학자들과 모여 토론의 불을 지피며,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 과학자가 예술가처럼 작업하는 부분은 과학적 진행 과정의 상상적 단계 즉 가설 형성에 있어서 일 것이다. 이후 비판적 증명과 실험이 개입되면 과학은 예술과 다른 길을 걷는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 상상력은 창조의 기본 요소다. 거리두기로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같은 세상을 꿈꾸는 일도 아련하다.

‘인간이 삶이라는 거미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 한 오라기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인간이 거미줄에 가하는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한해가 저무는 12월에 시애틀 추장의 말을 떠올려 본다. 자연 속에서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영위하고 살아왔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참사람 부족’들은 문명인들을 가리켜 ‘무탄트’라고 불렀다, ‘무탄트’는 기본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어떻게 훼손해왔는지-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답이 아닐까.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그 시험에 도전하는 일이다.

12월에는 우리가 걸어 왔던 발자국을 돌아보며 함께 새로운 희망의 지평을 꿈꾸어보자. 

특집기획

2021 광주 문화현장 핫이슈!

2021년 문화현장은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아시아문화원 검열사태,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문화예술회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 등 여러 이슈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역 문화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기획은 '2021 광주 문화현장 핫 이슈!'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2022년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편집자 주

- 문화행정과 개방형 직위
윤만식_ (사)한국민족극협회 상임고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 존재의 이유
주홍_ 치유예술가
- 광주시립극단 사태로 본 예술인 권리 명과 암
임인자_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
- 드디어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변화다운 변화가 기대된다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현황 그리고 장애인
정진삼_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문화행정과 개방형 직위

광주광역시 5기 지자체 장부터 일관되게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수위 때부터 주장한 광주시 문화부시장 신설, 산하 기관장 중 문화예술회관장, 비엔날레 사무처장을 민간인 개방형 전문가로, 시립 미술관장을 민간인 평론가로 공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7기 이용섭 시장님이 시정을 시작하면서 문화부시장이 신설 되어 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역임한 이병훈 님이 문화 경제부시장에 임명되고, 시립 미술관장에 전국 공모에 의해 이 지역 출신이 아니지만 광주 비엔날레 초창기에 큐레이터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중견 평론가가 선임되고, 문화예술회관장도 개방형 민간인을 공모하여 정치인 출신이 선임되었다.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간인이 선임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에서는 7기 지자체부터는 저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보낸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다.

그렇게 2~3년이 지난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장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곧바로 市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에게도 상의를 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물론 행정적으로 市에서 인사 문제를 집행하는데 시민단체와 상의하라는 원칙은 없지만, 수년간 요구해온 사안을 7기 지자체장이 실행에 옮긴지 2~3년 만에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개방형 해제를 취소하고 민간인 개방형으로 공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예술관광 실장 명으로 답변서가 나왔는데, 현재 문화예술화관이 노후화되어 3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공사의 관리, 감독을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명분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상 해결해야 할 몇 개의 문제점들까지 정리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여 민간인을 임명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민간인을 못 믿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리하여 시민단체들은 그 답변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9월 15일에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대표들과 시장과의 면담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본인이 7기 지자체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2019년에 문화예술 회관 장을 민간인 개방형으로 공모하여 현 관장을 임명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측근 인사 내정이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그분은 측근도 아니고 캠프 사람도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회관의 현 상황(리모델링 외 몇



개의 사안 등)만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내로 틀림 없이 다시 민간인 개방형으로 원상 복구한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어서 시장님을 만난 김에 현재 광주 문화예술계의 문제점을 얘기하였다. 민간인 개방형으로 공모할 때 그 직위에 맞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다. 문화예술에 무관한 인물이 문화예술회관 장에 선임되면서 발생한 시립극단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객원 배우들이 연습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미 보험처리와 미 계약서 작성, 정 단원들이 객원 배우들에게 행한 성추행 발언, 명예훼손, 각종 갑질 행위 등을 방관하고 무대응으로 대처함에 결국 당사자들이 회관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사태까지 얘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년 이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젊은 20~30대 배우들이 투쟁하며 배우 활동을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시립극단의 전 예술감독이 사임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극단 운영에 총 책임을 지는 예술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회관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이뿐만이 아니고 현재 8개의 시립예술단체 중에 단장(단체별로 안무자, 지휘자, 예술감독 등)이 부재한 단체가 아직도 몇 단체는 존

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 비엔날레 사무처장직에 미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인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했으나 1년여 전에 모 신문사 문화부 부장 출신의 인사가 선임된 것을 보고, 미술 분야에 전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미술 쪽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

부탁하건대 고유한 인사권자인 시장님에게 개방형 민간인 인사를 하실 때는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꼭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임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人事가 亡事가 아니고 人事가 萬事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상임고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 존재의 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 존재의 이유가 5·18이다. 1980년 민주시민들을 향해 총으로 학살한 자(전두환)가 대통령이 된 이후,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까지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던 국가가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의 부흥’으로 보답하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별법을 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를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시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재와 그 장소의 역사가 마주하는 일이다. 예술에서는 그것을 ‘장소성’이라고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1980년 ‘광주5월혁명의 최후의 결사항쟁지’라는 지난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장소성이 그 이유다.

나는 광주 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이 된 옛 전남도청 바로 그곳에 서면, 최후의 결사항쟁에 남기로 결심한 시민들의 심장박동이 느껴진다. 그곳에서 처참하게 군인의 총과 화염방사기에 죽임을 당하고 마당에 던져진 열사들의 시신과 줄줄이 끌려가 505보 안부대 지하에서 고문당해 불구로 살아가는 민주시민들의 한이 서린 곳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더라도 그 정신과 희생에 감사하

며 춤춘다.

1980년 5·18 피의 대가로 국가가 아시아에서 문화 허브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누가 ‘5·18을 그만 좀 우려 먹어라.’ ‘지겹다.’고 말하고 광주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말해도 정치적으로 지우고 싶어서 ‘아시아’라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며 방점을 찍어도 그곳은 광주 민주시민 최후의 항쟁지다.

내가 올해 본 전시 중 잊을 수 없는 전시는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하성흡의 수묵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다. 그 장소성을 살려 죽었던 자리에서 윤상원 열사를 부활시킨 전시였다. 이 전시는 올해 5·18 41주년을 맞이하여 광산구와 아시아문화원이 기획한 전시다. 하성흡 작가는 이 작업을 수행하며 윤상원이 되어 그린 것 같았다. 병의가 되어 자료를 찾아다녔고 들불 열사 윤상원을 1년 동안 그림으로 부활시켰다.

그런데 그 전시의 작품 중 대표작으로 “광주시민 여러분! 최후의 일각까지 싸웁시다. 5월 20일 정오

광주 금남로에 총집결합시다!”라는 작품을 포스터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작품은 5·18 흑백사진 중 시민들을 학살한 군부에 분노한 시민들이 트럭을 타고 총결집을 외치는 장면이다. 사진 속 트럭의 정면에는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 그 당시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다. 하성흡 작가는 이 사진 속 시민군으로 윤상원 열사를 그렸고 그림 속 윤상원은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뿌리고 있다. 이 강렬한 인상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을 그린 작품은 포스터로 사용하기에 적절했다. 아시아문화원에서는 이 작품을 포스터와 전시 홍보에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광주시민의 심정을 담고 있는 현수막의 글씨를 포토샵으로 지워버리고 포스터를 제작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을 지나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미술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억압의 시기에는 권력을 찬양하거나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꽃이나 풍경을 그리거나 어떤 말이든 붙이면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추상화가 유행한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국민 주권이 살아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세상을 꿈꾸며 그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이유로 아시아문화원은 설립된 것이다. 아시아문화원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모르는 것 같다.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고 외쳤던 국가폭력과 살인의 현장에서 분노하고 저항했던 시민들의 힘으로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된 것이다.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획자가 민주 정부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자기검열을 한 것이다. 직원이 “너무 거친 문구가 아닌가요? 이 문구는 지우고 포스터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디자인 시안을 가져오자, 그 러라고 한 것이다. 아니면 디자인 시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일까? 그러면 직무유기다.

아시아문화원에 근무한 모든 사람과 광산구에서 그 누구도 작가의 작품 속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홍보물과 포스터가 제작됐을 것이다.

별일 아닌 것으로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는 산소 같은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예술가는 숨 죽이며 살아야 하고 그 사회의 민도와 예술의 수준은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다. 눈치 보는 사람의 행동과 말과 춤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요즘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는 증거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우리 사회 속 계층 간의 민낯을 드러내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당당한 힘이 문화의 저력이다. 아시아문화원은 스스로 사전 검열까지 하면서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본단 말인가! 전두환의 눈치를 본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지 말고 광주시민의 눈치를 보라! 시민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에서, 그것도 5·18 최후의 항쟁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검열을 스스로 자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예술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존감은 예술가에게 갑질하는 게 아니다. 예술의 힘을 믿고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존경할 때 그 자존은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선진국의 행정이다. ♪



주홍 치유예술가

광주시립극단 사태로 본 예술인 권리 명과 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故 최고은 작가가 “...쌀이나 김치를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히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사망하기 이전까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법률이 계속 계류되었고,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고은 작가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가가 주도한 블랙리스트의 실행과 미투 운동의 경험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을 때에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으며, 예술인의 창작 과정에서 생긴 위계 속에서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

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예술 활동 및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년 9월에 마침내 법이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2020년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comeback with바리>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연습중 안전사고, 계약지연, 성희롱, 갑질, 불공정계약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부조리를 고발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계약은 지연되었고,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광주시립극단에서 안전사고, 계약지연, 성희롱, 갑질, 불공정계약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었다. 2020년 9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20년 11월에는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품별단원제’에 속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

며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약속하였지만, 결과는 경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2021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관련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직장내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는 광주시립예술단의 상임 및 비상임 단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작품별 단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2021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하면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한 투명인간이 된 예술인들의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5·18민주광장 앞에서의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2021년 9월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이 공무원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무런 사건의 해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당사자와 대책위 활동가들은 관장실 점거에 나섰다. 그 결과로 광주광역시 및 문화예술회관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날 아침 대책위는 법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철저히 가해자 입장에서 쓰인 광주광역시의 입장문이 제출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게다가 가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광주광역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는 제3조에 “총단장은 광주광역시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여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결

국 민사소송에서 광주광역시는 이 의견서를 철회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떤 분들은 왜 예술인의 권리보장인가를 질문한 적이 있다. 예술인이 특별하여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의 특성상 자기 고용이나 고용 관계도 될 수 없는 취약한 투명인간으로 창작활동을 해왔던 안전하지 못한 창작 환경에서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예술인들 투명인간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술인 역시 응당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창작할 권리가 있다.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예술활동에 있어 검열 등과 같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광주시립극단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광주광역시에 만연한 위험한 창작환경,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예술가, 심지어 광주광역시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일어난 사건과 해결과정에서의 제2의 가해들을 바라보며, 재발방지 및 예술인을 위한 지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이 도구가 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예술인도 한 명의 시민으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촉구하며 광주광역시 및 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와 예술가 모두의 협력을 요청한다. ♪



임인자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

드디어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변화다운 변화가 기대된다

그간 광주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20세기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정당한 사례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인정하더라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의 페이, 행정 편의적인 사업 공모 시기(사업 기간), 과도한 정산 절차 등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광주시의 문화행정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민선 7기 문화정책 4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개선 추진계획’이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물이 100도로 끓기 전 몇 년의 시간에 걸쳐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겠지만, 올해 지원 사업 개선 실무 TF 운영을 담당한 광주시 박주용 주무관의 열정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크게 박수 보내고 싶다. 시의 담당자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조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몇 년간 지지부진 했던 지원 사업 개선이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뤄냈다.

올해 9월, 광주시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 내용들이 주목할 만하다. 개선안은 기존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는 내용, 문화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 권리 증진의 3대 정책 13개 과제를 담았다. 그 중 필자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이렇다.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 그 동안 지원 사업 공모시기가 너무 늦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연말 본예산이 확정되는 12월에 바로 다음 년도 사업 공고를 하도록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사업에 따라 시비와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의 경우는 기존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 사업만이라도 공모 시기가 앞당겨진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사실 12월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은 10월에 다음연도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하고, 2차 공모는 12월에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우선 일 년 열두 달을 활용할 수 있는 긴 호흡의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그간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빨라도 3, 4월에 교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4월, 5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으며, 심지어 필자는 6월 말이 되어서야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우도 있다. 문

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1월에서 3월까지의 민간의 문화 프로그램을 만나기 어려운 문화 공백 기간이었다. 공모시기가 앞당겨지며 이런 문화예술의 공백기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공연예술 사례비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의미 있다. 그간 공연예술 사례비의 경우 지급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쏟아졌다. ‘3천만 원짜리 악기를 들고, 3백만 원짜리 차를 타고, 30만 원짜리 공연을 하러 간다’는 자조 섞인 공연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자로서 괜스레 미안할 때(?)가 많았다. 21년 광주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설명 자료 ‘단체예술 공연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2인에서 5인이 하는 1시간 공연의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11인 이상 1시간 공연의 경우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30만 원은 커녕, 11인 이상의 공연이라면 1인당 6만 원 수준의 페이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도무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이 부끄러움은 대체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지. 기획자로 활동하는 필자는 가끔 억울할(?) 때도 있는데 이런 지급기준 상황을 잘 모르는 청년 공연예술인들이 우리 같은 문화기획자가 돈을 많이 떼어먹고 예술인인 본인들에게 이렇게 낮은 수준의 페이를 지급한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이다. 내년에는 문화도시 광주가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부디 조금은 벗어나길 기대한다.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설명자료에서 발췌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단체 예술공 연	지급기준	지급액 (만 원)	※ 5인 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 공연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 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 ~ 5인(1시간)	50	
	6인 ~ 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예술인 개인들에게 가장 와 닿는 변화는 〈문화재단 소액 지원 사업 정산 간소화〉일 것이다. 서울과 부산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소액사업은 증빙 생략이 가능했고, 인천 같은 경우도 300만 원 이하 지원 사업은 증빙 생략이 가능했지만 광주는 그렇지 못했다. 100만 원, 200만 원 소액 지원을 받을 때도 정산이 필수이다 보니 그간 정산이 어렵고 번거로워 지원 사업을 포기한다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특히, 신진 청년 예술가와 원로예술인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2년 단위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 사업 운영〉 역시 현장에서 계속 요구했던 개선사항이다. 기존 창작지원 사업은 예산을 교부 받고나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반년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2년 단위 창·제작 지원 사업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변화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건강해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지만 이번 변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무척 오래간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시 문화행정에 대해 칭찬 위주의 글을 쓸 수 있어서 마음이 가볍다. 이번처럼 행정이 의미 있는 변화와 결과를 추진해 갈 때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한다. 그래야 행정도 일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런 글만 쪽 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현황 그리고 장애인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이 바뀌는 인류 역사상 커다란 변곡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과 불요불급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은 당연히 나중으로 미뤄졌다.

2년여 가까이 상황이 지속되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문화예술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미술관, 극장 등의 경우는 일정 기간 폐쇄되었고 또한 비대면이라는 커다란 족쇄가 채워져 무관중, 유튜브, 온라인 등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마스크 없이 모두 함께 모여 공연을 즐기고 전시장을 드나들던 일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당연히 관중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분야는 나름의 활로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현장의 몰입감이 현저히 떨어져 큰 호응을 얻을 수 없었고 우리만의 그리(league)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졌다. 또한 온라인 공연 및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곳(단체, 작가 등)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가 등과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입

장 수입을 전제로 한 문화예술활동은 중단 및 폐지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집단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약 75%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처해 가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로부터 언제 해방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인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일상의 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문화예술계도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를 대비하는 전략과 시대적 여건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언택트 공연, 전시, 기획 등 비대면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고 말았다.

한편, 코로나 특수라는 특혜(?)를 받은 작품, 공연, 작가 등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의 공공 문화공간도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만 보아왔던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지만 기존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와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을 보내

장애인 문화예술계도 어찌 다름이 있을까? 비장애 문화예술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물리적, 환경적, 재정적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활동적 제약이 더욱 심화되고 위축되어 사회적 제반 환경에의 접근이 어려워졌다. 코로나의 장기화가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다보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화향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문화예술은 인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주요 원동력이다. 코로나19가 유발한 사회적 변화를 성장통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며 변화가 주는 발전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워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과 창작활동 등으로 문화예술계가 돌파구를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BTS의 온라인 콘서트가 1회 공연으로 250억 원을 벌었다지 않는가.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란 말이 메아리쳐 울리길 기대해 본다.

늘 그래왔듯이 대면이 익숙하니 문화예술을 나누기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부터 바꾸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의 본질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종식에 앞서 비대면은 임시방편이라 여겼던 때와 달리, 이제는 코로나와 공존이 기정사실화된 지금의 상황에선 대면만큼이나 비대면 방식의 중요성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계도 어찌 다름이 있을까? 비장애 문화예술계 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물리적, 환경

적, 재정적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활동적 제약이 더욱 심화되고 위축되어 사회적 제반 환경에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에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당연히 국가에서 정한 방역수칙과 예방 차원의 정해진 틀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서로 소통하며 허물어 가야 하는 장벽을 코로나의 장기화가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단지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은 관행적으로나 담론적으로 보건복지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모종의 복지 서비스로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편견이다. 장애를 지닌 문화예술 활동가(예술인)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



정진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문화인 탐구생활



박진영 아나운서에게 듣는 매력적인 말하기

대담 강희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활동가 박진영 아나운서

우리는 말하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말 공부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인지, 꼭 필요한지, 친절한 말인지를 살펴야 해요.

사람은 쉽게 말실수를 한다. 쉽게 언성을 높이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한다. 개인의 인성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번 인터뷰를 기획했다. 사회에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하기, 자극적인 발언, 혐오 표현 등이 만연해지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박진영 아나운서·공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오랜 기간 말하기에 대해 연구해왔다. 인터뷰에 나온 조언들을 토대로 평소 우리의 말하기 습관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강휘연(이하 강)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진영(이하 박) 저는 지금 여러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개막식 행사나 토크쇼 사회를 보는 등 아나운서로, MC로 이런 방송 활동을 16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청중과 교감하면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로서 스튜디오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결국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책을 썼어요. 책 『아나운서처럼 매력있게 말하기』 출간을 계기로 전국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박진영의 말하기 특강』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강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박 정치인이나 리더 혹은 청년, 취준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공감하고 소통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는 공감과 소통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알리면서 실천을 이끄는 곳입니다.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데, 주로 CEO들이 많아요. 코칭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심하게 더듬는 경우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또 현재는 조직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육과 코칭을 하고 있어요. 4개월 한 학기 동안 20명 정도가 모여서 말하기 공부를 하는데요. 이 연구과정이 7년 정도 이어져서 14기까지 배출이 됐습니다.

강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소장이시고, 여러 강의와 저술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신데,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 저는 아나운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나운서의 도구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와 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받았어도, 말하기 교육은 별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아나운서로서 개막식 행사나 토크쇼 진행 등 사회도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요즘에 전달력에 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강 대화 같은 일상의 사적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과 스피치 등의 공적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 대화와 스피치, 둘의 본질은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주고, 듣던 사람이 말을 하면 말하던 사람은 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5:5가 아니라 9:1 심지어는 10:0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이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공적인 스피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30명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30명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전달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청중의 현 상태를 살펴야 하고,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청중의 귀에 쏙쏙 잘 들릴지 고민해야 하죠. 예로 영화를 길에서 본다면 제대로 내용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밀폐된 장소, 굉장히 큰 음량으로 몰입을 시켜야 하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공적인 스피치는 목소리, 음성, 발성, 발음이 탁월해서 청중에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스피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 대표님이 평소 좋은 말하기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박 첫째는 경청하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할 말이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듣고자 질문을 많이 던져요. 대답을 들으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경청은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면서 듣는 거예요. 저는 대화 중에 8:2로 들으려고 해요. 8 정도는 듣고 2만 말할 수 있

도록요. 그리고 아나운서 시절에는 실수한 말을 일기에 적어서 날마다 확인했어요. 또 남이 해준 피드백도 항상 적었고요. 말은 거의 수양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질문하며 경청하기', 그리고 '자신의 말을 매일 적어 관찰하기' 이 2가지를 하고 있어요.

강 경청을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박 저는 묵언수행을 권해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말아 보시라고요. 그러면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해보면 변화가 나타나요. 한 분은 말을 듣기만 했더니 평소에 말이 없던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상대를 알게 된 거죠. 그때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과제를 드리는 해요. 경청하지 못하는 말하기는 잘못된 말하기예요.

강 가장 좋지 않은 말하기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를 고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박 상대를 무시하는 말하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무시당하면 화가 쌓이고 결국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어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 범죄들로 나타나고 있죠. 강자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게 화를 풀면서 무시가 악순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시에는 편견이 들어있어요. 편견에 기반해서 남을 무시하는 발언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를 관찰해야 해요. 내가 오늘 쓴 단어, 문장이 혹시 타인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야죠. 그리고 무지에서 생기는 편견이 많아요.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강 요즘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 갑질 문제가 꾸준히 이슈인데, 윗사람의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박 갑질 문제는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어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 책도 잘 읽지 않죠. 그래서 편견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대 간에 단절되어서 무지와 편견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뉴스에서 정부가 청년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만 접하면 청년들이 편하게만 살려는 애들 같고 곱게 보이지 않겠죠. 언어는 권력을 드러내요. 권력이 없는 부하직원, 청년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바꾸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말하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기 교육은 단순히 말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 프로그램이에요.

강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왜 자꾸 실언을 하고 심하면 폭언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실언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박 실언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에요.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평판이 떨어지게 돼요. 사실 인간이라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아무거나 꺼내버리면 실언이 나오게 되죠.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만 채워놓기는 쉽지 않으니 늘 성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언을 줄이려면 평가하는 말을 줄여야 해요. 사람들이 평가를 쉽게 하니 실언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로 아이가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는데, 아빠가 아침 출근 때 아이가 노는 걸 봤고 퇴근하면서 쉬고 있는 아이 모습에 ‘넌 하루종일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하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이는 공부를 했는데 아빠가 모르고 실언을 한 거죠.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본 것에 대한 사실만을 말해야 해요. 평가언어를 멈추기만 해도 실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표현법을 익혀야 해요. 훈련이 필요하



죠.

강 언어감수성이란 무엇인지, 이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박 인권감수성이란 언어의 민감도죠. 언어를 민감하게 돌아보는 능력을 말해요. 감수성이 커져야만 내가 한 말이 실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어리장갑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어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병어리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제가 『결정적 말실수』라는 책을 쓰면서 장애인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대략 천여 명을 만났고 그 중에 장애인이 꽤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병신’이에요. 그런데 드라마, 영화, 일상에서 잘 쓰잖아요. 언어감수성이 높으면 이런 표현을 지양할 수 있는 거죠. 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실 장애인이면 어때요. 그의 성공을 강조하려고 쓴 말이겠지만 언어감수성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은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분석해보면 너무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많아요. 언어, 단어, 문장 표현에 대한 감수성 즉 민감도가 발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쓴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언어감수성을 기려면 역시 교육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말을 늘 성찰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상대의 말을 경청부터 해야 하죠. 내 말이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



도록.

강 나의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공감 이가요. 그런데 나는 주의해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칼처럼 다가오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큰애가 벌써 중학생 인데 넌 언제까지 직장이나 다니고 있을거니?’라고 말을 하면 ‘어머니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참 견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머니, 큰손자 교육이 여러모로 걱정되시는 거 알아요.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제가 신경 많이 쓸 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내가 친절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안 좋은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 듣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 해요.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화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은 ‘목소리를 크게 내시니 몹시 당황스러운데 자초지종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차분하게 진정시켜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 볼 수 있겠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지요.

강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말하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실된 말인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말이면 안 해야 해요. 둘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살펴야 해요. 굳이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진실되고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가장 숭고한 실천이 바로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친절한 말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독자분들도 내 앞사람에게 친절하면 되잖아요.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님에게 친절하면 되고요.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말의 목적은 소통인데,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은 절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친절한 말하기에요. 친절을 다들 쉽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친절하지 말고 내 앞사람에게 항상 친절해야죠.

박진영 아나운서와의 대화를 통해 좋은 ‘말하기’ 습관이란 결국 좋은 ‘듣기’ 습관 이라는 답에 도달했다.

만약 ‘자기 말을 아주 잘 하는 사람’과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사람’ 둘 중 한 명과 하루를 함께 보내야 한다면 나는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본다. 나의 당연한 선택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당연한 사람인지를...

좋은 마음으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마음도 좋은 말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박진영 아나운서의 조언은 매일을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만드는 최고의 훈련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산수에 노니는 즐거움

- 화순군 환산정(環山亭)

뜻이 꺾인 세상에 더 이상 미련도 없었는지 시인은 그저 자연 속으로 침잠하고 싶을 뿐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지조를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하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뜻이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결국 부질없음을 깨달았음을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다. 바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지내는 동안 시대와의 불화(不和)를 극복하고 있다.

얼마 전 입동(立冬)이 지났다. 벌써 겨울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계획을 점검하니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않는 게 태반이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칼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주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입동 절기 시작부터 기온이상 탓인지 마치 입춘(立春)처럼 포근한 날씨가 어색하기만 하다.

무등산 동남쪽은 화순군과 이어져 있다. 무등산에서 이어진 안양산 아래 동면 서성리에 환산정(環山亭)이 단아하게 앉아 있다. 호숫가에 기다란 돌이 다리처럼 이어지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 환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인데, 실상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정을 알고 보니 1965년 서성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했다. 만일 저수지가 아니었다면 누정의 이름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텐데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쉽

게 떠오르지 않는다.

서석산 아래 서암이라는 마을이 있다. 여러 봉우리들이 줄 서듯 하여 고리처럼 둘러섰다. 그 가운데 산자락이 솟다리미처럼 솟아올랐다. 흰 물이 감싸 흐르고, 깎아지른 붉은 절벽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그림같다. 사명산천(四明山川)에 내리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이인(異人)의 굴택(屈宅)이 있었을 것이다.

유동영(柳東榮)이 지은 「환산정중건기(環山亭重建記)」에서 환산정의 처음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지금 저수지 물이 빠지면 환산정은 마치 절해도에 놓인 섬처럼 외따른 모습으로 우뚝 솟아져 보이지 않을까 싶다. 사명(四明)은 이백의 시 「대주억하감(對酒憶賀監)」에 “사명에 미친 나그네 있었으니(四明有狂客), 풍류 넘치는 하계진이로다(風流賀季



환산정 현판



환산정 원운

眞). 장안에서 한 번 서로 만나서는(長安一相見), 나를 적선인이라 불렀지(呼我謫仙人)”라고 한 바와 같이 당나라 때 시인 하지장(賀知章, 659~744)을 말한다. 굴택(屈宅)은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굴원(屈原)의 집으로 환산정의 주인은 하계진처럼 풍류가 넘치고, 굴원처럼 숨어사는 은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환산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그는 백천(百泉) 유함(柳涵, 1576~1661)이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 구봉(九峯) 조옥(趙昱, 1498~1557)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이 뛰어난 인물로 이름이 났다. 병자호란 당시 조수성(曹守誠, ?~?)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청주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인조(仁祖)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여 강화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였다. 이후 고향에 내려와 환산정을 짓고 숨어지냈다고 한다. 현재의 누정은 후손 낙호(樂浩) 등에 의해 1896년에 중건하였고, 1933년에 또다시 보수하면서 현재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가운데 방을 앞히고 사방에 마루를 냈다.

그렇다면 누정의 이름 ‘환산’은 무슨 뜻일까. 9세손 상철(相喆)이 지은 『환산정중수기(環山亭重修記)』에서 엿볼 수 있다. ‘누정’을 환산이라 하는

데, 대개 구양수의 「취옹정기」에서 취한 것으로 숨어지내면서 도를 가르치는 곳으로 삼았다. 亭以環山 蓋取諸歐陽子醉翁亭記中語 而因以爲隱居講道之所者也’라 한 것으로 보아 송나라 때 구양수(歐陽修, 1007~1072)의 취옹정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취옹정기(醉翁亭記)』는 구양수(歐陽脩)가 1046년 유배살이 할 때 저주(滁州) 지주(知州)로 있을 때 어느 승려가 저주의 낭야산(琅琊山)에 유람객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누정을 세웠다. 구양수는 산에 올라 산천 구경을 한 다음에 늘 그 누정에서 술을 마시며 글을 지었다고 하며, 자신을 ‘취옹(醉翁)’이라고 부르고 그 누정을 ‘취옹정(醉翁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취옹이라고 한 것은 취옹의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수 간에 있다. 산수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마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는 술을 빌어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함은 청나라에 굴복한 율분을 술에 취해 산수 간에 노니는 것으로 풀었을까. 그가 남긴 시 한 수를 읊어본다.

庭有孤松階有菊	뜰에는 외로운 소나무, 계단에 국화 있고
學來栗里晉先生	율리(栗里)에 진선생(晉先生)을 배우러 왔네
乾坤磊落違初計	하늘땅은 퇴락하여 첫 계획을 어긋나고



환산정

山水幽閒托晚情	산수는 유한하니 늦정을 부치네
棄上春秋忘甲子	앞사귀에 춘추로 갑자를 잊었고
心中日月保皇明	마음 가운데 일월은 황명을 보존했네
歲寒後操其誰識	세한 지난 지조를 그 누가 알라
時與山翁和不平	때는 산옹과 더불어 불평을 화하네

인 세상에 더 이상 미련도 없었는지 시인은 그저 자연 속으로 침잠하고 싶을 뿐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지조를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하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뜻이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결국 부질없음을 깨달았음을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다. 바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지내는 동안 시대와의 불화(不和)를 극복하고 있다. ♪

뜰에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달며 언제나 변함없는 소나무가 있고, 계단에는 서리맞은 국화가 차가운 날씨에 아랑곳없이 피었다. 시인은 동진(東晉) 때 도연명(陶淵明)이 평생을 숨어지내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이와 닮고 싶어 한다. 선비가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임금을 도와 백성을 다스려 태평성대를 꿈꾸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말았다. 뜻이 꺾



임준성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되길

우리에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제 매우 친숙하면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만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전시 오픈 시기를 기다려왔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노랗고 빨간 나뭇잎들과 어우러진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느덧 자리 잡은 새로운 계절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새로운 미래로 안내하는 것 같았다.

‘d-Revolution’이라는 타이틀로 전개된 2021년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최근 2~3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일어난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위기 상황, 새로운 갈등으로 둘러싸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표현하고 이러한 시대에서는 새로운 변화 이상의 ‘혁명(revolution)’에 대한 준비의 당위성을 어필하는 주제로 작품들이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들은 개별 관람객들과 전시작품과의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개인화된, 개별화된 해석과 이해를 유발하게 하는 순간들을 창작해 보라고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혀 기대치 못한 방식으로 전시가 전개되어 관객

들은 가벼운 탄성을 내면서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오브젝트들은 익숙한 것 같은데 새롭게 표현되었고,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처음 본 것 같은, 낯선 대상이지만 근접하게 가고 싶게 하고, 낯아 보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느끼게 하였다.

각각의 전시장 안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 대상들이 융합하기도 하고, 양면적인 가치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 같은 작품들은 과거와의 다른 가치로 새롭게 재창조, 재구성되어 2021년 현재의 관람객이 작품을 보면서 과거와의 연계를 통한 발상, 작품과 관련한 유사한 경험과 기억의 소급 등이 비교적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짐이 느껴졌다. 작가만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담고 있지만, 관객들마다 개별적인 해석을 유도해내는 알 수 없는 친근함과 작품 속으로의 수월한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 다른 전시회보다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은 본인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 최근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기획과 개발에 있어서 개인화된 디자인, 과거와 연계를 통한 재발상 제품 기획의 사례가 많아졌고, 또 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관객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쉽게 유도하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작품들과 전

시에 대한 공감감이 충분히 느껴졌다.

텍스타일 디자인 제품들이나 패션, 잡화들의 전시들은 일상 속에서 개인과 매우 가까운 경험을 상기시키며 익숙하게 받아들여졌고, 다양각색의 전시 중에 한 템포 쉬는 심터처럼 흥미가 있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에 적합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적 융합을 시도하는 전시들은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안전에 대해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전시장에서는 AR을 비롯한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체험을 병행한 전시가 이루어졌고,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참여 호응을 받았다. 이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도래하는 미래 디자인과 삶, 일상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지역산업관이었는데, 최근 K-뷰티의 글로벌 인기로 더불어 뷰티 관련 지역업체의 디자인 상품들이 제안되어 친근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K-팝의 열풍과 함께 이제 K-패션, K-푸드, K-뷰티산업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타분야와의 다양한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의 경제 창출을 견인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희망한다.

202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시작됨을 알리는 전조등처럼 다가올 일상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매회 우수한 디자인 작가들과 창의적인 전시가 이루어져왔고 매회 관람객들에게 제시하는 창의적 임팩트들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음을 한껏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이유가 되어왔다. 이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벌써 10회가 될 전시를 앞두고

있으며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되길 응원하게 된다.

앞으로 준비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기술로 구성된 ‘지능형 정보기술’이 디자인 분야에도 핵심 변화의 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ICT 기술이 적극 도입된 디자인비엔날레가 되길 제안한다. 또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그동안의 전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인을 양성하거나, 새로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전략 수립에 활용하여 차별화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회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와 전시 관련 자료들에 대한 DB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관객들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관객들의 참여를 미리 이끌어내는 전시를 기획하거나, 관객들과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금보다 더 시민의 삶과 일상 속에 녹아드는 전시회가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향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움브즈만’이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마일리지’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시민참여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광주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평생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향유와 체험의 혁신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지연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광주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미래 모색할 중요한 시간이다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가 올해로 지정 7년을 맞았다.

야박한 듯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는 아직 멀고 미디어아트 예술 분야가 타 장르에 비해 특별하게 활성화돼있다고하기도 어렵다. 단적으로 광주비엔날레 어디에서도 미디어창의도시 색션 하나 만나기 어렵고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한 공공립, 사립미술관과의 연계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렇다고 당초의 취지인 '미디어아트+산업'이라는 모델이 추구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내년 AMT센터 개관을 앞두고 대 전환이 요구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본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무언인가, 광주는 왜, 무엇을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가, 당초의 방향은 적정했는가, 이후 길은 제대로 걸어왔는가 등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는 유네스코가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창의도시를 지정한다. 광주는 2014년 당시 광주의 광산업과 미디어아트를 연계해 새로운 문화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정 이후 광주시는 이렇다 할 정책방향도 비전도 내놓지 못했고 몇 년 후 광주문화재단이 시민향유와 미디어아트 래지던시, 미디어아트페스티

벌 등을 운영하며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나 약 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2억 원짜리 1주일 전시에 불과했다. 게다가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한 공사립미술관과의 연계된 전시도 전무했다. 지난해부터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실험되고 있다. 전시, 시민참여, 과학기술과의 결합, 산업의 접점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축제로서의 가능성 모색에 나섰다.

페스티벌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의 유네스코창의도시들에 있어서 페스티벌은 하나의 전략이자 산업이다. 미디어아트창의도시만 놓고보면 강력한 관광전략으로 활용하는 도시부터 새로운 도시경쟁력 요소로 추구하는 도시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강력한 도시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미디어아트도시들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빛의 축제로 유명한 관광도시 리옹. 그 빛의 축제가 바로 리옹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핵심축제다. 리옹은 관광+산업의 형태를 띤 가장 성공한 예 중 하나로 꼽힌다. 조명산업과 연계한 미디어아트로 산업적 측면도 강하고 세계 최고의 빛의 축제는 말 그대로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꽃이다. 파리 인근의, 채 인

구 10만이 되지 않는 앵겔레벡은 아예 관광전략으로 미디어아트창의도시를 도입한 경우다. 관련 예술인도 소비할 인구도 없는 이 도시는 휴양도시의 휴양에 고급 예술을 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도시의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예술이나 산업적 성격보다 온 시민들이 거의 참여하다시피 하는 퍼포먼스 중심의 축제다. 샷포로도 관광전략으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경우다. 여기에 반해 미국중부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은 새로운 미디어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한 독특한 경우다. 오스틴은 WAX라는 세계 3대 음악축제가 열리는 음악도시다. 그러나 이들은 음악이 아니라 관련 예술 인프라도 부족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신청했다. 이들은 미국 최고의 음악 인프라(산업)에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 모든 미디어아트창의도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전세계 최고의 미디어아트 도시로 꼽히는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 린츠다. 린츠의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아르스일렉트로니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다. 아르스일렉트로니카는 세계 최고의 미디어아트페스티벌로 철강도시, 쇠락해가는 린츠를 단번에 세계적인 문화도시반열에 올려놓은, 린츠의 또 다른 브랜드다.

아르스일렉트로니카의 특징은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르스일렉트로니카는 축제 이름이자 기관 이름이다. 이 기관은 '과학기술+예술+산업'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자체 연구실이 있어 이곳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여기에 예술이 결합된다.

예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사회, 산업 혁신을 모색하고 실행한다. 관련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예술이 기술과 만나 사회를 탐구하고 예술·기술이 미래를 선도한다. 자체 연구개발부서는 기업 협업으로 산업으로 연결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인력양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관 자체의 인력양성은 기본이고 지역 대학이 기관에 필요한 세부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인력을 양성해서 인력을 공급한다. 린츠 도시 전체가 아르스일렉트로니카를 매개로 촘촘히 연결돼 움직인다. 아르스일렉트로니카와 대학, 시민이 똘똘 뭉쳐 예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디어아트창의도시에 관한 종합연구를 마친 광주시도 이제 비전과 전망을 시민들과 공유할 때다. 내년에 선보일, 미디어아트의 핵심 전진기지인 AMT센터가 최전선에서 역할을 정립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인력양성과 함께 AI도시 광주, 과학기술원, 정보문화진흥원, 국립아시아전당 창제작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승작용을 만들어가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세계미디어아트창의도시들의 전략과 광주라는 도시를 비교 분석해서 광주만의 경쟁력, 광주에 요구되는 창의도시의 향방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광주가 AI중심도시를 선언한 마당에 과학(AI), 지역대학(교육), 예술인력의 결합은 세계적 경쟁력을 꿈꿔볼 수 있다. 남도의 각별한 창의성, 빼어난 지성이라면 세계 최고는 남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역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이 열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구현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향후 이 열개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는 이제 광주시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조덕진 무등일보 논설실장

문화전당의 총체적 역량을 재조직할 때다

문화전당의 새로운 출범이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이어 9월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문화전당은 문화전당장 및 기획운영관과 함께 콘텐츠기획과 등 7개 과 단위 부서의 125명 인원으로 재조직한다. 또한 40명의 직원으로 신설 운영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도 문화전당의 새로운 도약에 함께 할 것이다. 내년 초 신임 전당장이 선임되면 문화전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새로운 향해를 시작할 것이다. 문화전당이 벅찬 기대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

첫째, 조직문화 형성이다. 통합 문화전당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문화전당만의 안정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6년을 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조직문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신임 전당장의 리더십 아래서 새롭게 구성된 인력들이 문화전당의 운영 가치를 공감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책임운영기

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내부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기존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인력이 재편되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통합문화 형성은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문화전당의 위상과 역할, 전당장의 문화예술경영 철학, 혁신적인 문화행정 시스템 운영, 지역과의 협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전당만의 독보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만큼 신임 전당장의 책임성과 문화경영 리더십이 중요한 때다.

둘째, 콘텐츠 창·제작 기능의 강화이다. 이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기존 아시아문화원이 수행해 온 콘텐츠 창·제작 기능을 국가기관인 문화전당에서 직접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9월에 마련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 규정’ 개정안의 하부조직 구성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기획과’와 ‘콘텐츠사업과’를 두고 융복합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관련 콘텐츠 개발·제작, 인력 교육, 콘텐츠 지식재산 관리 및 유통 등의 업무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자원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제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진했던 콘텐츠 창·제작의 효과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콘텐츠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것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다. 문화전당의 운영 성과가 지역사회의 문화경제 확대에 이어지는 것은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문화전당의 총체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문화기관의 역량은 조직 구성, 인력 운영, 조직의 문화, 재원 조달 등 다양한 부문들의 종합적인 구성물이다. 문화전당은 새로운 문화적 삶을 창조하기 위한 문화예술자원과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전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로 채워져야 한다. 개관 이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번 문화전당 직원의 신규 채용이 더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역량의 한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갈수록 확대되고, 문화콘텐츠 기술 환경이 빠르게 고도화하는 변화 지점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문화전당을 이끌어가는 구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그동안 문화전당과 지역과의 협력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제 두 주체가 문화, 경제, 사회 영역에서 보다 밀도

높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창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최근 문화전당이 광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벨트 권역별 사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협력의 지평을 공간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다. 앞으로 문화전당은 지역사회의 협력 영역을 시민참여, 예술인 창작, 문화경제 육성, 문화콘텐츠 자원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문화적 공간 구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화전당이 콘텐츠 창·제작 및 운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콘텐츠 분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호남의 인문·지리·공간·문화예술 등에 관한 원천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 자원으로 재가공하는 작업 등도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이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IT기술의 전환적 시기에 맞추어 문화전당의 운영과 콘텐츠 창·제작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광주가 '메타버스 융합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문화콘텐츠 제작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가려하는 현재의 상황을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환적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원

우체국 통기타 동아리 ‘빅포스트하모니’

동아리 소개

빅포스트하모니(Big post Harmony) 통기타 그룹은 2011년 7월 북광주 우체국 직장 동아리로 결성되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통기타 그룹이며, 현재는 10여 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축제 등에 참가, 광주지역 내 어르신을 상대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1회 정기적인 모임과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순수한 비영리 어쿠스틱 통기타 음악 동아리이다.

동아리를 결성하게 된 계기

동아리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2011년도에 직장 내 1인 1취미 갖기 운동에서 시작하였으며, 그해 10월 우정청 주관 문화예술 공연 발표회를 개최함에 따라 7월에 결성하여 3개월간 발표회를 목표로 매일 저녁 2시간씩 맹연습을 실시하였다. 초창기 회원 20명 정도로 매일 일과 후에 외부 강사를 직장으로 직접 초빙하여 강습을 받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열심히 배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기타가 정말 어려운 악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몇 개월 지나 한 사람씩 연습을 포기하고 현재는 10명 정도 남아 활동 중이다. 첫 공연 첫 곡으로는 「어니언스의 작은 새」를 멋지게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결성 3개월 만

에 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3곡의 통기타 노래를 연주 했으니 어설피웠을 테고, 많이 떨렸던 첫 공연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인상깊었던 활동

그 후로 광주 충장축제 연속 5회,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공연,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2회, 노인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 매년 4~5회 씩 공연을 하였다. 그중 기억에 남는 공연은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중이었다. 마지막 곡을 마치고 앙코르 곡까지 연주 후 마치려는데 계속해서 앙코르 박수가 멈추지 않는다. 다음 공연자는 대기하고 있고, 관람객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한 곡 더 연주를 마쳤다.

장비를 정리하는데 백발의 어르신께서 다가와 서울에서 오셨다며, 정말 공연을 잘 봤노라고 칭찬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다. 또 주간 보호센터, 요양원에서 느끼는 뿌듯함은 재능기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레 받고 오는 느낌이 더 크다. 기타 소리 음악 리듬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 동실동실 춤을 추고, 순간순간 정신을 놓으셨던 분들도 가사는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부르시는 걸 보면 음악 치유의 힘을 실감한다. 또 한 번의 감동은 남구에 있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SAD MOVIE」를 공연곡으로



마치고 내려오는데 80대의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손을 꼭 잡으시며 옛날 추억을 회상하게 되었다며 정말 감동이었다고 해주셨을 때, 너무나 뿌듯한 느낌이었다.

코로나 이후의 달라진 활동

작년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2020년 한해는 봉사활동을 다닐 수 없어 안타까운 해였다. 회원 모임은 물론 연습도 할 수 없고, 각자 집에서 개인 연습을 해야만 했다.

빅포스트하모니(우체국) 통기타 그룹은 회원들 일정 금액의 월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소소한 장비는 물론 재능기부 때 간식도 약간씩 기부하려면 금전적 애로가 많았다. 다행히도 광주문화재단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3년째 후원을 받을 수 있어 재능 기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치신 어르신들이 많아 조심히 요양시설 네 곳을 방문하여 공연을 즐겁게 마치게 되었다.

그중 올해로 두 번째 방문하는 시설 있다. 어르신들께서는 마치 소녀들이 연예인에 열광하듯 우리를 반기신다. 왜 이제야 왔느냐, 꼭 다음에 또 와달라는 간곡한 애원이 있어 더없이 기쁘다. 이런 칭찬에 재능 기부하는데 더 큰 보람을 느낀다.

빅포스트하모니 앞으로의 활동 계획

올해 다시 개최하는 중장축제에 11월 19일 참가하

여 7080 곡으로 통기타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서서히 시작하는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기쁘다.

전 국민이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좀 더 자유롭게 소외계층도 찾아 공연도 하고 어르신들 웃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전 국민이 누리지 못했던 문화적 혜택도 배가되게 즐기는 희망을 기대한다. 우리도 좀 더 노력하여 그날을 대비하고 싶다. 우리가 진정 어르신들을 위해 드리는 것은 통기타 노래 몇 곡, 간식이 다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재능기부(봉사)를 통해 마음을 열고 활짝 웃는 모습이 진정한 재능기부일 것이다.

내 주위 가까운 이웃이 서로 소통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빅포스트우체국 통기타 그룹은 음악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이웃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안길열 빅포스트하모니

대안공간 산수싸리

산수싸리가 처음 문을 열었던 곳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산수시장의 작은 점포였다. 우연찮게도 그곳의 지명인 '산수'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애정하는 자연을 의미하기에 공간의 이름으로 담고 싶었다. '싸리'는 흔히 아는 싸리 빗자루의 재료인 싸리 풀에서 따온 것인데 공간 이름을 고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 중 싸리는 산과 들에 흔히 자라고 '생각', '상념'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당시 공간을 함께 오픈했던 활동가 친구와 장난말로 "우리네 인생은 길바닥 인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종종했었는데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공간 운영을 시작하면서 우선 '지역 문

화예술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다. 일에 대한 고민 역시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되돌아보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큐레토-리얼리즘'이다. 이는 광주를 기반으로 한 신진(예비) 기획자들을 선정해 이론 세미나, 미술현장 리서치, 개별 기획물 제작 등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역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가능한 시너지를 얻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라도 해보자는 시



도였다. 다행히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이 프로그램은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해 9월 결과전시까지 마쳤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수짜리 재·개관 기념전시 <진정성해방>, 여성인권지원센터 주관 반성매매기획전시 <36.5°> 등 사회적 현안을 비롯한 청년예술인들을 주인공으로 올리는 자체 기획 전시들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광주 안에는 ACC, 국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비엔날레 등 대형 기관부터 다양한 스팟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안공간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산수짜리가 지향하는 공간은 예술계의 주류적 시스템이나 제도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지향하며 여러 변방의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아직은 희미할지라도 점차 산수짜리의 행보를 통해 광주의 아트씬, 특히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에 활기를 더하고 대안공간으로서의 독보적 역할을 갖기를 바란다.

반면 산수짜리라는 단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본의 문제인데, 비영리 활동을 위주로 하며 수익구조를 견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은 어느 예술 공간이나 마찬가지다.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젝트 운영 외에도 대표자의 사이드 잡을 통한 생계유지가 필수불가결하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공간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예술인의 노동에 대한 단가산출의 어려움과 부당한 사익 창출에 대한 제한으로 보조금 내 공간 인력의 인건비 책정도 매우 한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고 예술 공간의 성격별 차등지원 및 예술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대우 등 적극적인 개선이 시

급한 현실이다.

산수짜리가 문을 연지 이제 햇수로 3년차를 맞았다. 다소 비약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나의 커리어와 활동 기반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단순 동기로 시작했던 이 공간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일 자체가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3년의 시간은 여러모로 첫 관문을 넘겼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듯하다. 지역문화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상위기관에서는 신진 예술인 혹은 신생단체(공간)와 그 다음 스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3년의 기간이다. 개인적으로는 첫 공간의 임대계약 기간이었던 2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공간에서의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마음가짐을 재정립하며 의지를 다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현재 산수짜리가 위치한 골목은 Space DDF라는 또 하나의 미술공간이 이웃으로 입주하면서 상호 협력 하에 골목재생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여러 문화 공간이 밀집한 충장로 46번길을 예술 골목으로 전환시키며 침체된 구도심에 점차 특별함을 가져다 줄 마중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기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골목의 풍경과 흥미로운 기획 콘텐츠가 만나 이루어지는 시너지를 전하고, 예술과 함께 하는 삶을 고민하고 나누는 대안공간 산수짜리가 궁극하다면 충장로를 찾아주시길 바란다. 

피규어와 디오라마 문화 대중화를 꿈꾸는 GN STUDIO!

#1. GN STUDIO 의미와 소개

안녕하세요. 키덜트 영역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GN STUDIO입니다. 저희 GN STUDIO는 Good Need와 STUUDUO의 결합어로 즐거움이 필요한 제작 소란 뜻이며, 기분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키덜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무언가를 모으고 소장하는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강의와 유튜브 영상, 작품사진 그리고 전시회를 통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피규어와 디오라마 영역에 입문한 계기

저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며 취미로 이 분야를 알게 되고 퇴근 후 저에게 작은 휴식 같은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점 일에 적응해갈수록 일에 재미보다는 지치고 힘든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주한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후의 삶은 정말 죽은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취미가 일이 된 분들을 보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모든 걸 정리한 후 경기도로 이 분야를 배우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 동안 정

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찾아가면서 개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3. GN STUDIO의 주요활동

저희 GN STUDIO의 주요활동은 작품제작(전시작품, 의뢰작 제작), 전시회, 피규어-디오라마 제작 교육, SNS활동, 제품 개발 및 판매로 모태가 되는 주요 활동은 작품제작과 교육활동으로 현재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생소한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모형분야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개발 중인 제품도 곧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 피규어·디오라마 영역의 상황, 환경 등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피규어와 디오라마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적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NC웨이브 건담베이스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게 광주 분들에게 위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

들은 현저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은 5년 전에도 비슷하였고 오히려 그때 매장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기도로 배우러 갔을 때부터 지방에서 활동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전시회나 동호회 그리고 취미로 접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접하고 광주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5. 피규어와 디오라마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현재는 광주에서 이 분야를 알릴 수 있게 피규어와 디오라마를 만드는 수업을 강의 중입니다. 또한 국제 아트페어와 예술의 거리에서 전시회를 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만드는 과정이나 완성된 것을 즐겁게 볼 수 있게 영상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실력 좋은 분들이 만들어 가는 분위기나 문화 형성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작품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 광주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 소개

3년째 피규어와 디오라마 만드는 수업을 광주삶디자인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취미로 시작했던 분들은 영상으로만 만났던 교육들을 직접 해보고 만들어보고 만져보며 목마름을 해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분들 또한 생소하지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체험해 보며 자신의 취미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던 배움의 목마름을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철학은 하나입니다. 즐겁게 배



우고, 만들며 완성된 작품은 타인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 GN STUDIO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는?

앞으로 광주에서 피규어와 디오라마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문화를 저희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개척되지 못한 땅은 개발되기 힘들지만 일구어 나간다면 그 어떤 곳보다 비옥해지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못지않게 활동하는 작업자 분들이 늘고 서로가 끈끈하게 이어져 다양한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외 활동과 소식 등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적인 부분도 추진하여 지역에 뜻이 있는 인재도 함께 데리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중현 GN STUDIO 대표

내게 신선한 문화공간과 체험을 선물해 준, 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지난 8월 26일, 우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이 광주문화재단과 시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재단 구성원으로서 두 번째 맞이하는 교류마당이었다.

이번 주제는 2가지였는데, 그 중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다. 한편, 나는 교류마당 당일까지 실무자로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었다. 하지만, 지역문화교류마당 현장은 나의 작은 기대감에 보란 듯이 신선함을 한 움큼 선물해주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세계 16개국 17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광주'

이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건물 내에 미디어아트를 통해 광주의 예술, 산업, 사회적 자산을 세계 창의도시들과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미디어아트 특화 6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가 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을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광주는 인권, 예술, 광산업의 빛이 넘치는 고장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그간의 노력이 인정되어, 세계에서 네 번째,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신선함과 생생함을 느끼게 해준 6개 공간

이 날, 관람 및 탐방한 공간은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338,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 놀이터, 5G미디어실증체험관 'SPACE5G네'로 총 5개였다. 먼저,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미디어아트 관련 자료가 수집된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에서 창의 도시에 관한 설명을 소개받았다.

평소 이날과 같은 체험과 즐거움은, 대규모 전시회나 엑스포, 체험관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정된 생각은 단박에 깨졌다. 우리 지역에서, 나의 일상과 인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체험 공간으로 이동했는데 3곳이 인상 깊었다. 첫째, 홀로그램 극장이다. 이곳은 다양한 장르의 홀로그램 공연과 상영물을 3D 입체 안경 없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지역 최초 홀로그램 전용관이라고 한다.

둘째, 미디어 놀이터이다. 여기서는 창의적 판타지와 뉴미디어 결합한 활동형 체험을 할 수 있다. 만지고 움직이며 온몸으로 뉴미디어를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증강현실과 모션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썬런과 퍼즐 아틀리에, 미디어 징검다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을 통해, 재미있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다.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긴다면 생생하고 이색적인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G미디어실증체험관 'SPACE5G네'이다. 5G 기반 실감 미디어 기술이 담긴 이 공간은 광주만의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앞아보는 미술관, 네모네모 체험관, 움직이는 공연장, IT관객 매나씨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체험성이 가득한 공간이니, 성인과 아이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사진과 생생한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신선한 문화공간과 체험을 선물해 준, 일곱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나열한 공간들을 체험하면서 나는 마치 어린아이

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기하고, 생동감 넘치고, 아름답고, 즐거웠다. 동심과 기술,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잠시 새로운 세계에 놓여 있는 듯한 기쁨을 만끽했다.

평소 이날과 같은 체험과 즐거움은, 대규모 전시회나 엑스포, 체험관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정된 생각은 단박에 깨졌다. 우리 지역에서, 나의 일상과 인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된다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생생한 문화공간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뛰어가며 체험해보시기 바란다. 잠시, 생동감이 없었던 감각에 생기를 불어넣고, 문화 향유의 시간을 추천해 드린다.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신선함을 선물해 준 지역문화교류마당에 감사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 식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지역문화교류마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요청드립니다! ✨

김남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미래를 위한 실천

-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변화,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다. 지구가열로 빙하가 녹아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의 영상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안다. 개인이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추세이다. 나는 아직 유치원생인 내 조카들을 보며 생각한다. ‘저 아이들이 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보다 집에서 놀거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일상이 당연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구 환경이 더 악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지금과 같은 생태계파괴, 환경오염이 지속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소배출과 탄소흡수 양의 합을 0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영역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실천을 한다. 그러나 유독 한국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덜한 듯하다. 아니 책임을 회피하는 거 같달까.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방송을 하는 미국인으로, 환경에 관심이 적

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 기후위기가 왜 심각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너무 무겁지 않게 말해주고 있다.

기후 위기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보통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쓰레기 문제를 먼저 떠올린다. ‘전기와 물을 아껴쓰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생활화합시다...’ 같은 문구가 익숙하다. 당장 지구 어느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물에 잠기고, 혹은 불에 타고, 태풍 쓰나미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단지 절약하고 분리수거를 잘하기만 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 시급한 현실에 비해 너무 태평하지 않은가?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나는 기후위기로 인한 나의 미래, 내 조카들의 미래, 나아가 전 지구의 미래가 심각하게 걱정되는데, 주변을 보면 너무도 태연하니 말이다. 책의 저자는 개인이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탄소배출 관련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우리가 사는 상품은 모두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된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예로 종이 생산에 산림 벌목이 행해지는데, 산림을 보호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생산된 종이에는 FSC 인증이 표기된다.

나는 이 사실을 책을 읽고서야 알았다. 이렇게 인증이 있는 경우는 좀 나은 경우이고, 모든 상품에 탄소발자국(제품생산시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니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는 불편해진다.

결국 현시점에서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개인은 스스로 방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후로 나는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동물은 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산림(나무)과 바다는 탄소를 흡수한다. 바다는 가장 거대한 탄소 저장소이다. 따라서 산림과 바다 생태계 보존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인간이 지금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이미 배출된 탄소의 양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기 충분하기에(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현재 415ppm 초과), 생태계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인간의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육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0억 명에 달하는 인류의 육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간 수백억 마리의 가축이 길러지며, 가축을 수용할 토지 확보를 위해 산림 벌목이 행해진다. 또한 그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식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지구에서 생산하는 곡식의 양만으로도 모든 인류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8억에 달하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생산된 곡식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기온의 주범이다. 결국 인간의 육식은 산림을 파괴하고 지구 기온을 높이며 가난한 인구를 굶주리게 하고 있다.

아마존 파괴의 심각한 현황은 보도로 잘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상 가장 거대한 탄소 저장소인 바

다' 파괴의 심각성은 비교적 덜 보도되는 듯하다. 해양동물 섭취 또한 해양생태계를 망치는 원인이다. 이미 해양생태계의 절반이 어업으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다. 어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 바다에서는 남획이 자행되고 있는데, 참치가 멸종위기종이 되었을 정도다. 거대한 어망이 지나간 해양생태계는 물고기가 사라지고 해초도 죽고 만다. 바다가 죽으면 탄소 흡수가 크게 저하되어 지구기온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험 한계점은 1.5도 상승이다.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은 1.1도 상승했고 21세기 안에 2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 수의 68%가 사라졌다. 그나마도 8종 중 1종은 멸종 위기종이다. 책의 저자는 채식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채식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건강상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자의로 채식을 하는 이를 괴짜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배출되어 지구를 데우고 있는 탄소를 흡수해야 한다. 따라서 지구의 탄소 저장소, 즉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태계의 근간은 생물 다양성이다. 나는 동물의 권리나 도덕적 책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건강한 환경에서 잘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고 가능한 실천을 해나가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 배출, 육식을 줄이는 것 등 말이다. ♪



강희연 지역문화교육료남재단 청년인턴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와 앞으로의 기대

지난번의 제2회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많은 시민문화 예술인들께서 대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술인분들에게 대구의 명소를 구경시켜드리고 대구 시민들의 삶을 잠시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에게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이라는 이동시간 때문에 만나서 약 반나절밖에 같이 있지 못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내륙임에도 서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직선거리 약 180km, 차

로 약 2시간 반. 철도를 통해 가려면 대전을 거쳐 ‘ㅅ’자로 환승해서 가야 하는 불편한 위치. 따라서 우리는 달빛내륙철도의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우리는 이동 시간을 약 한 시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류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 방법을 세 가지 시각에서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문예술인을 주축으로 하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 합동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구의 예술인에게 광주의 팬클럽이 생기고, 광주의 예술인에게 대구의 팬클럽이 생긴다면 그 팬들은 예술인을 위해 서로의 지역을 자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적 요소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문화예술인 간의 세부적인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우리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와 같은 프로그램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도 다양하게 조직하여, 한 번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 번은 청년층 시민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여성 혹은 남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 사회적 계층 안에서 심도 있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층 안에서의 깊은 토론과 고찰은 대구와 광주의 문화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제를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 간의 교류, 특히 대학생들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

학뿐만이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들과 학생 동아리들 간에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작업실에서 작업하며 같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경험이 생긴다면 대학생들 간의 끈끈한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문화계를 달빛동맹이 선도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화상회의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 저는 화상회의만으로는 사람들 간의 정과 느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해야 합니다. 달빛내륙철도의 완공을 절실히 기원합니다. 서대구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철도가 완공되는 그날, 우리 막걸리 한잔 하시지요. ♪



우성현
한국장애인문화대구광역시협회
수성구지부 사무국장

문화톡톡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뜻있는 이들이 아무리 외쳐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나 봅니다. 저기 서서 광주를 조망하고, 광주 거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광주라는 도시의 정신을 느껴보라고 고심해서 만들었을 터인데, 한 쪽에서는 여지없이 그런 생각을 무질러버리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제10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미래’ 강진탐방으로 마무리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 10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2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15일(수) 강진 문화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탐방에서는 다산 박물관, 다산초당, 영랑생가, 시문학파기념관, 남미륵사 순으로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진행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명망 있는 강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문화강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여덟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코로나와 건강 이야기’



‘코로나와 건강 이야기’ 라는 주제로 여덟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행사가 11. 24(수) 18시 40분, 재단 사무실에서 임회원 및 시민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마당은 오형근 의학박사, 목포성심요양병원 대표원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형근 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일상을 회복해야하는

지에 관해 설명하며 슬기로운 회복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지역문화교류마당은 우리 재단이 임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매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조직

2021년 2차 후원이사회 열려



올해 두 번째 후원이사회가 지난 9. 28(화)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11월 중순에 기획했던 제주 역사문화탐방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취소하고, 회원 송년의 밤은 12. 8(수) 정기 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와 병행하여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진행키로 하였다.

재단 연구소 4차 기획위원회 및 광주여행기 발간 사업 2차 자문위원회 열려



재단 연구소 4차 기획위 및 광주여행기 발간 사업 2차 자문위원회가 지난 11. 23(화) 18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광주여행기 사업 연구진으로부터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발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2022년 조사연구사업은 재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사

업과 강좌 내용, 오는 12월 10일경 광주시 사업 설명회를 토대로 적절한 시기에 기획위원 모임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연대

광주문도협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와 만남



지역과 경계를 넘은 교류 기반 구축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달빛 시민문화단체 교류 모임이 지난 9. 4(토)에 대구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대구 시민문화단체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문화협회와 대구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하여 간담회와 문화탐방, 소통과 교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문도협은 문화 분권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 시민문화단체와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문도협 생통강좌 개강, 문화전당·담양 답사로 마무리



11. 2(화) 15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2021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통강좌(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가 개강했다. '다시 시작,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그리고 광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좌는 11. 2(화)부터 11. 16(화)까지 4개 강좌와 답사 1회로 진행되며, 재단 임·직원과 시민, 문화단체 활동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광주 방문 반대 기자회견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조롱한 윤석열의 광주 방문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 11. 9(화)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의 문화·노동·인권·여성·환경 등 50여 개 시민단체는 "헌정질서 파괴범 전두환을 옹호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반대한다"라며 "진정성 없는 사과 방문으로 민주 성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11. 10(수)에는 100여 명의 오월어머니,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이 윤석열 후보의 망월동 참배 반대를 위한 행동을 함께했다.

광주문도협 생통포럼 개최



'달라진 문화전당, 그리고 광주!' 포럼이 지난 11. 25(목) 광주 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렸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우리 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문화예술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변화되는 모습을 공유하고 정부와 광주시, 시민사회가 문화전당 활성화와 지역 협력 방안을 모

재단·회원소식

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론의 장이었다. 사회는 우리 재단 이기훈 상임이사가 맡았으며,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아특별 개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야할 길'로 주제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이정미 아문단장, 김요성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시민패널로 문화 현장의 종사자와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오건규 이사(화백),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아트광주21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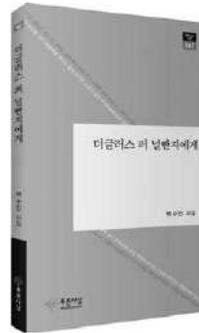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9월 1일 목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2개월의 수목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수목비엔날레는 전통 수목을 대중화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해 전남의 미래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와 진도 각 3개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채 찬란’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아트광주21 사무국과 보문복재재단 동곡미술관이 공동주최·주관해 열리는 ‘아트광주21 프리뷰 : 점과선의 무지개를 만나다’ 전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21)’ 행사에 출품되는 작품 가운데 참여 작가 32인의 72여 점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 <전남일보> 발췌

백수인 고문(조선대 명예교수), 두 번째 시집 『더글러스 퍼널 뻘지에게』 출간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한 뒤 고향인 장흥 소재 거처에 머물며 창작을 벌여왔던 백수인 시인(67)이 최근 두 번째 시집 『더글러스 퍼널 뻘지에게』를 푸른사상 시선 147 번째 권으로 펴냈다. 시인의 시선은 고향 집이 자리 잡은 전남 장흥에서부터 두만강 건너까지 무한하게 펼쳐진다. 『선달그믐』, 『아버지의 방』, 『고로쇠나무』, 『풀

독』, 『뜯구름』, 『민들레 흙씨』 등 모두 60여 편의 시는 서정과 자연, 유년과 기억, 개성과 보편을 아우른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이야기는 물론, 자연과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들에서 뜨거운 서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백 시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5·18기념재단 이사,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 저서 『현대시와 지역문학』, 『소통과 상상의 시학』, 『장흥의 가사문학』 등을 펴냈다.

- <남도일보> 발췌

남성숙 이사(광주관광재단 이사장),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 ‘대한민국 의정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정착대상’에서 문화관광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 대표이사는 광주관광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써 광주 관광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협력여행사 지원, 공유사무실 개소 등 지역 여행업계와 상생하는 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뉴미디어를 통해 광주 관광을 홍보했다. 재단은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팸투어, 버스킹 등 대면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했고, 개별 관광객을 위한 챗봇, 증강 현실 기반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김향득 운영위원장(사진작가), '5·18 시민군' 김향득 작가 '광장...' 사진전



5·18 현장 사진가로 불리는 사진작가 김향득씨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 주제는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부터 4대강 저지, 국정원 헌정 유린 사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까지 광주 시민의 애환이 서린 시대적 사건의 현장인 5·18 민주광장에서 만난 평범한 이웃을 찍은 사진을 선보인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그 현장에 참여해 빠짐없이 기록한 사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시민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김 작가의 설명이다.

- <전남일보> 발췌

한선 운영위원(호남대 교수), 광주전남기자협, 광주전남 언론사 '방송·통신' 편찬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신문편에 이어 광주전남언론사 '방송·통

신편'을 편찬한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전남 최권일 협회장이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전남언론포럼, 광주전남언론학회와 '광주전남 언론사(방송·통신) 편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5월 편찬을 목표로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언론포럼이 지원하고, 광주전남언론학회가 편찬에 참여한다. 원로 언론인과 전·현직 기자 등 총 45명이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집필에는 한선 호남대 교수와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 이오현 소장·김송희 교수, 나의갑 광주전남언론인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 <뉴스시스> 발췌

김상집 이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글과 수묵, 사진으로 만나는 윤상원 열사 서울 전시

<윤상원 일대기-역사의 기록화> 전시가 마침내 서울에 도착한다. 11월 17~28일 서울 인사동 코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서울전은 <글과 수묵, 사진으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으로 한층 풍성해졌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출발해 부산, 울산, 서울을 돌아 세 번째인 서울전은 모두 5개 전시로 구성됐다. 전시실에서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30년 삶을 그려낸 하성흠 작가의 수묵화와 김광례 작가의 윤상원 흉상 조소를 볼 수 있다. 2실에서는 시민군 동지인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 이사장의 『윤상원 평전』과 성남훈 작가의 사진으로 5월 그날의 현장을 재연한다. 3실에서는 열사의 일기로 보는 노동운동가 윤상원 이야기, 4실에서는 5월 동지 이태복씨 등의 증언을 기록한 김지욱 작가의 영상을 볼 수 있다. 5실에서는 민주화 운동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보는 사진전이 열린다.

- <한겨레> 발췌

송진희 부이사장(호남대 예술대학장) 제7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취임

12월 3일(금),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제7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김점진(공무원)	• 김희태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정희 시인『광주문학』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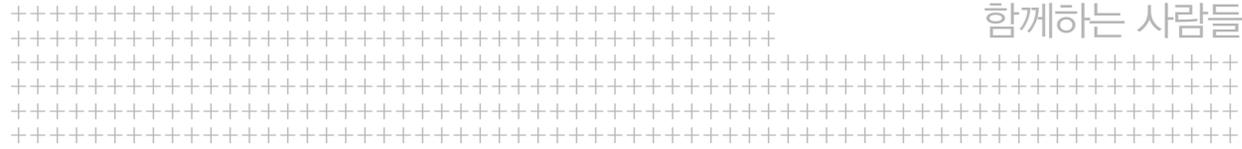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차일헌 (사)빛고을사진문화포럼 이사장,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남중 청년인턴

강휘연 청년인턴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광주문학』 편집주간,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운윤 시인



노란빛으로 수놓은 옛 전남도청의 은행나무

노란 가을을 수놓은 옛 전남도청 옆 은행나무는 수령 150년 이상 된 나무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 4·19, 5·18, 6·10항쟁 촛불혁명까지 광주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당산목이다.

편집후기

코로나로 개인들의 내면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의도적 거리두기의 우아한 효과일까? 2021년 마지막 『창』을 기획하며 문화현장의 핫이슈와 비엔날레, 미디어아트, 문화전당 등 문화진단의 콘텐츠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창의적인 틈새를 찾으려 나름 심각한 논의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같은 정보의 나열이 아닌 재미있게 환승하며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창』을 생각했다. 주파수를 잘 맞추면 잡음은 저절로 없어지고 생생한 소리를 듣게 된다.

올 한해 『창』의 주파수는 잘 맞았을까.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생각한다.

2022년에는 고독한 개인들의 다채로움을 최대한 활용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의 일상을 꿈꾸어 보자.

- 편집위원장

窓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2021

광주시티투어



시티투어 운행코스 확인하기

순환1코스-전당권 문화관광 투어



정기1코스-무등산권 지질명소 투어



순환2코스-시내권 내부순환 투어



정기2코스-빛고을 남도 투어



🕒 **운영기간** 2021년 8월~12월(5개월)

🕒 **운영시간** (09:00~18:30)
순환1·2코스, 정기1·2코스 - 매주 토·일

📞 **이용안내**
이용문의 : ☎ 062. 941. 6301(관광안내소)
홈페이지 : 광주시티투어.com 또는 gwangjucitytour.com

📄 **기타문의**
광주광역시관광협회(gjtravel.or.kr) ☎ 062.224. 4486
광주관광의 모든것

🕒 **운영방법** 순환1·2코스, 정기1·2코스, 특별코스

💰 **이용요금**

코스	투어 프로그램	탑승료	할인액
순환	1코스 - 전당권 문화관광 투어	3,000원	1,500원
	2코스 - 시내권 내부순환 투어	1,000원	1,000원
정기	1코스 - 무등산권 지질명소 투어	9,000원	4,500원
	2코스 - 빛고을 남도 투어	9,000원	4,500원
특별코스	특별 노선(디자인비엔날레, 축제행사 등)	1,000원	1,000원

※ 할인적용대상 : 초등학생이하, 70세이상,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동반1인 까지)
※ 특별코스는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gwangjucitytour.com)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저작권 서비스센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상담,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SW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교육

어려운 저작권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서비스 신청 방법 **택1**



온라인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copyright.or.kr) 내,
중소기업 서비스



전화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062) 610-9532 / 9534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메일

copyright@gitct.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GWANGJU INFORMATION & CONTENT AGENCY